

중남미

◆ Mercosur-EU 자유무역협상 진전 담보 상태

금년 5월 17~18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EU·중남미 정상회담²⁾ 기간 중 칠레와 EU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는 대조적으로 남미공동시장³⁾(Mercosur)과 EU간의 자유무역협상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농산품 수입규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양 지역 정상들은 오는 7월 브라질리아에서 Mercosur·EU간 각료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한편, EU는 1990년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1999년부터 칠레, 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EU와 Mercosur는 여러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01년 7월 EU측이 Mercosur産 농산물 수출품의 약 80%에 대해 최장 10년 이내의 점진적인 관세율 감축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Mercosur측은 곡물, 육류, 낙농제품, 설탕 등 주요 수출품목이 관세율 감축방안에서 제외되어 특혜관세 협상대상으로 분류된 점, 관세율 감축폭이 낮아 Mercosur産 농산품⁴⁾의 EU 시장 접근 개선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동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브라질은 EU의 농업보조금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EU는 동 보조금이 경작상의 이유로 발생하였으며, 동 문제는 다자간 기구인 WTO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관세장벽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EU측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투자규정,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을 무역협상의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 EU와 중남미의 48개국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참석하였음.

3)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1996년에 칠레,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4) 브라질 농산품 수출의 약 50%가 EU 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금년 말까지의 각료회담 일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목표시한 설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2005년 1월 1일 출범예정인 FTAA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브라질이 2004년까지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측은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협정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 진전에 난항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르헨티나 위기로 인해 Mercosur 회원국간 교

역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금년 1월 아르헨티나 폐소貨의 평가절하 이후 역내교역 위축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에서 EU의 내부적 여건도 협상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현재 중·동구 국가들의 신규회원 가입,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문제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EU 지역 유권자들이 최근 우경 민족주의 성향으로 기울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더구나 EU 농민들이 보수적인 유권자 집단임을 감안하면, Mercosur가 주장하는 농업보조금 철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李 漢 九】